

법치와 자유

법률방송이 만드는 법문화 시사교양지

송상현

시대의 얼굴 - '치유적 정의'를 위하여

박재완 대담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를 향하여

김관기

법은 만능인가

박성희

한국사회 공론장, 이대로 괜찮은가?

조종태 인터뷰

"검사 27년, 후회는 없다"

박생강

단편소설 '하얀 짐'

모성준

맛집의 딜레마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위기

김주영

한국형 디스커버리, 재판지연·사법불신 해소의 묘수가 되려면

법률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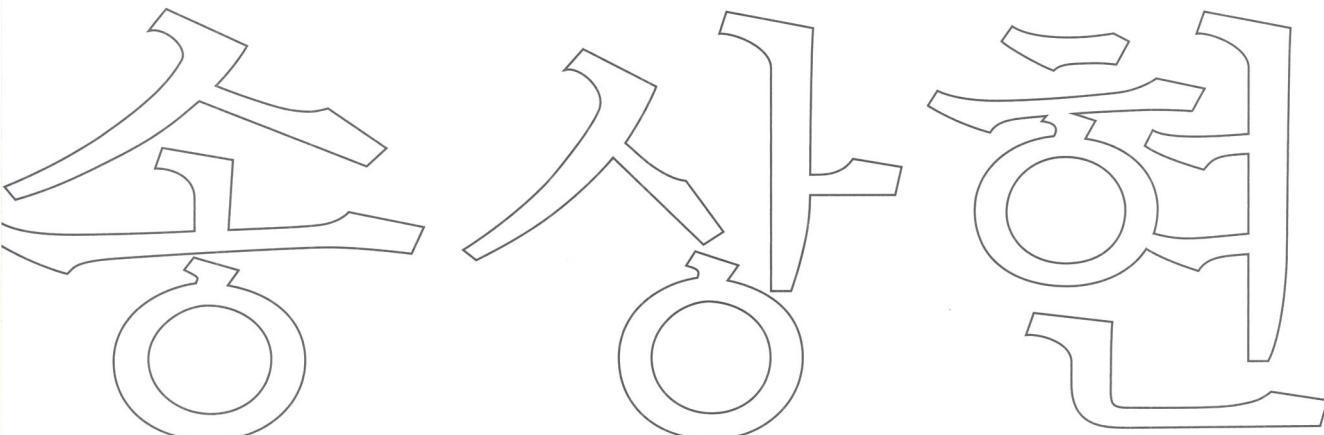
저스트 프레스。



송상현은 교수, 법률가 혹은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라는
어느 한 가지 수식만으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이름이다.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해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을 걸고
지난 11월 설립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명칭에 국제·정의·평화·인권이
모두 들어가 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1962년 고시 행정과 최연소 합격, 이듬해 사법과 양과에 합격하고도
법학교수의 길을 택한 후 60년 동안 서울대 법대 교수 35년,
뉴욕대 최초 외국인 석좌교수, 국내 최초 국제사법기구 수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교육과 정의와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
『법치와 자유』 인터뷰에서 그는 법학을 전공한 계기부터,
윤석열 대통령 등 제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거침없는 달변을 이어갔다.

글 = 김주미 법률방송 특임PD
사진 = 안도윤 법률방송 기자

‘치유적 정의’를 위하여 교육·정의·봉사의 삶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2009년 10월 29일 유엔총회에서 첫 연설을 하는 송상현.

“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법률가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거든.
옛날에 일어난 일 가지고 누구 잘못이네, 누가 맞네 하고 있다고.
앞을 보고 미래를 얘기해야지.”

뒤볼아보지 않는다는 송상현이지만,
몇 장의 과거 사진에서 그가 걸어온 삶의 길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2011년 5월 10일 전직 대통령 클럽 'The Elders' 회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09년 12월 15일 아프리카 방문 당시 경호원들과 함께.



송상현은 30년 동안 유니세프 활동을 해왔다.
2001년 4월 18일 유니세프 친선대사였던 영화배우
로저 무어(왼쪽에서 두 번째), 안성기(왼쪽) 등과 함께 한 행사.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 취임식이
열린 2003년 3월 9일 네덜란드 여왕과 기념촬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정적으로 인터뷰하는 송상현

“5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가족도 모르게 빈민촌
가서 독거노인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 알려지면서 ‘송 교수가
정치를 하려고 저런다’는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아동을 돕기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적어도 아동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송상현은 2012년부터 10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을 지낸 뒤 명예회장으로 봉사와
헌신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있을 때도 그가 가장 힘쓴 것은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의 처벌에 앞서, 그 피해자들을
가족처럼 돋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른바 ‘옹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이자
‘치유적 정의’이다. ●